

“계엄군 3차례 집단발포는 모두 20사단 투입작전과 연결된다”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5월의 진실을 찾아서

<6> 5월 21일 군 발포 II

7월 연재(25일자 10면)에서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돗개 하나 발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실탄 분배는 군의 사격이 어떻게(how)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신군부 핵심관계자들의 광주 방문은 누구의 명령(who)으로 사격이 이루어졌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아직까진 군의 집단 발포가 왜(why), 누구의 명령(who)으로, 어떻게(how)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연재에서는 왜(why)에 집중해서 군 발포의 진실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엄군의 최초 사격으로 둔갑한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신군부는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계엄군의 최초 사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는 계엄군의 최초 사격이 아니었다. 계엄군은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이전에 이미 광주역과 전남대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문서 1, 2, 3의 군 기록에서 확인된다.

군은 1988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5·18관련 군 기록을 수집하고 각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문서 1, 2, 3은 군의 최초 발포와 관련하여 당시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군의 대응 논리를 체계화한 내부 문서들이다.

문서 1은 1988년 3월과 4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1일 10시 전남대 정문에서의 사격으로 적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에 주둔한 3공수여단은 정문을 돌파한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당시의 사격은 무장시위대의 공격에 따른 대응 사격이라고 주장한다.

문서 2는 1의 후속 문서로서 1988년 5월에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계엄군의 최초 사격은 5월 22일 0시 40분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했다. 군은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무장시위대의 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림 2는 계엄군의 최초 발포 시기를 5월 20일 23시 5분 광주역 사격과, 5월 22일 광주교도소 사격으로 설정하고 최종 결론은 5월 22일 광주교도소로 결정했다.

문서 3은 1988년 6월에 작성된 511연구위원회의 회의 자료이다. 511연구위원회는 국회 광주청문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군의 대응기류로 1988년 5월 11일 발족했다. 여기서는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1일 13시 30분 도청 앞 사격으로 판단했다. 계엄군의 사격은 시위대의 탈퇴 차량에 의한 살상행위와 무장 과격시위대의 소총 사격에 대응한 공포 사격이었다는 논리이다. 특히 사격과 직접 연관되는 실탄 관리의 숙명성에 통합 보관했으며, 실탄의 분배 시기는 공식기록이 없다고 정리했다.

군의 주장과 대응 논리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 실탄이 조직적으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사라져야 할 기록이 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사격이라는 신군부의 대응 논리와, 집단 발포 이전에 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탄 분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군 사격의 사실을 담고 있는 군 기록은 물론 군의 대응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군 작전들이 군 기록에서 대거 사라졌다. 문서 1, 2, 3을 보면 군의 입장에 따라서 실재한 사건이 없는 사건으로 되고, 첫 번째로 작성한 문서에서 최초 사격으로 판단한 사건이 후속 문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바뀌는 등 광범위한 조작이 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광장 위를 날고 있는 군용헬기. 계엄군은 21일 새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시위대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헬기를 이용한 공중침투 작전을 세웠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청 앞 집단학살 이전에 광주역과 전남대에서 집단발포 20일 밤 광주역 사격 - 20사단 집결지 확보위한 작전 과정 21일 오전 전남대에서 사격 - 3공수 광주역 사격의 연장 21일 계엄군의 작전은 20사단 병력 도청 투입이 핵심

루어졌다. 이런 연유로 5월 21일 군 발포의 진실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군 기록에서 사라진 5월 21일 군 작전 신군부가 도청 앞 집단 발포를 계엄군의 최초 사격으로 공식화하면서 5월 20일 광주역, 5월 21일 전남대 사격은 의외로만 남게 되었다. 1995년 특검 조사에서 비로소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사격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군 기록에서 사라진 군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월 20일 23시 5분 광주역, 5월 21일 10시 전남대, 5월 21일 13시 30분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는 각각 별개의 우발적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군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격이다. 이들 사격은 모두 20사단의 광주투입 작전과 관련되어 있다. 5월 20일 광주역은 기차를 이용하여 광주에 투입된 20사단의 최초 도착 예정지였다. 5월 21일 도청 앞 광장은 헬기를 이용하여 광주 시내로 투입된 20사단의 공중 기동지였다.

문서 4는 20사단의 광주 출동을 명령한 육군본부의 작전 조치 사항이다. 여기에는 20사단의 최초 도착지가 송정리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20사단은 5월 21일 새벽 송정리역에 도착하여 전교사로 이동했다. 군의 공식 기록과 실제 도착지역이 송정리역으로 일치한다. 이렇다 보니 20사

단의 최초 도착 예정지는 지금까지 송정리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서 5의 전교사 작전일지는 20사단의 최초 도착지가 송정리역이 아니라 광주역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군의 공식 기록인 육군본부 작전지침 내용과는 달리 20사단의 최초 목적지가 광주역이었다는 사실은 1995년 특검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20사단 관계자들은 처음 출동 명령을 받았을 때 최초 도착 예정지는 광주역이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송정리역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했다.

5월 20일 밤 광주역 사격은 광주투입 명령을 받고 광주역으로 이동하고 있던 20사단의 집결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사격은 광주역 사격을 자행한 3공수여단의 주둔지 방향의 방탄한 시위대에 대한 사격이었다. 따라서 전남대 사격은 광주역 사격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는 작전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의 군 작전을 총괄했던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의 1995년 특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관계자들이 5월 21일 광주방문을 한사코 부정했으나 김재명 장군은 광주방문을 인정했다. 자신은 두 차례 광주를 방문했는데 도청 탈환작전에 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기 위하여 25일 방문했으며, 다른 한번은 5월 21일 광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다고 진술했다.

계엄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작전참모부장의 광주 출장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5·18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작전을 앞두고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월 21일 출장 관련 김재명은 오전 11시경 광주에 도착해서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을 만나 상황을 청취하고, 각 부대를 방문하고 나서 오후 3시경 서울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5월 21일 광주방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20사단의 작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만 진술했다. 계엄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할 정도로 20사단의 작전이 중요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5월 21일의 사격은 계엄군의 지휘권 차원의 사격이 아니라 군 작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전은 20사단의 광주투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라진 군 작전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군 사격의 실제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hesal@hanmail.net

※다음 원고는 9월 26일자에 게재됩니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사격일지

- 1 : 5. 19. 17:00 광주교도소 11억단 작전참모부 작전 일지 (좌익인물 7명 "네가 보던 좌익인물 7명" 거기서 88. 7. 30 발행 이문구 편집 P 41) (당시 11억단 인사장도 총괄 권오갑 중대 88. 3월 P 5)
 - 2 : 5. 20. 23:05 광주역 M16소총이 총포 도이 난사, 순경에게 선두에 있던 시위대가 쓰러졌다. (광주사격 "그 비극의 10일간" 순경 권오갑 편집 85.7월 신동아 P 244)
 - 3 : 5. 21. 10:00 전남대 앞 3억단 최초 사격 (특전사 거포 "광주사격 전남대 앞 3억단 최초 사격" 88. 3월 P 15)
- 상경 3 : 5. 21. 10:00 전남대 앞 3억단 최초 사격 (특전사 거포 "광주사격 전남대 앞 3억단 최초 사격" 88. 3월 P 15)
- 특전사 단 변파로 기록 : 전남대 앞 투입 폭도에 대한 피해자 입회
 - 당시 상황 : 시위대 10여명이 차량 100여대를 앞세우고 북문쪽 사격을 실시하면서 계속 돌진
 - 경로 결과 : 5. 20. 23:00 계엄군 발포금지 권오갑의 상황 - 상황의 위험성과 자위를 위한 데안이 없는 상황임에 대응 사격 실시 판단 (계엄사령관 지휘권 발동 거시 : 5. 22. 00:00)

○ 연 판단으로 5. 21. 10:00 시가 최초 사격 시기로 판단

문서 1. 1988년 3월에 작성된 군 문서.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1일 10시 전남대 정문으로 적시하고 있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 사격 일지

- 1 : 5. 20. 23:05 광주역 M-16소총이 총포 도이 난사, 순경에게 선두에 있던 시위대가 쓰러졌다. (광주사격 "그 비극의 10일간" 순경 권오갑 편집 85.7월 신동아 P 244)
- 2 : 5. 22. 00:40 - 시위대가 광장6대를 이용, 고속도로를 따라 교도소 공격, 계엄군 폭격용사/격벽 (작광6대, 총기7정, 실탄138발) (3억단 전투상보 "교도소 폭격" 광주사건진상규명위원회)
- 상경 2 : 5. 22. 00:40 시위대가 광장6대를 이용, 고속도로를 따라 교도소에 사격하면서 공격 실시, 계엄군 용사/격벽 (3억단 전투상보 "교도소 작전")
- 당시 상황 : 시위대가 광장6대 (1/4은 3대, 버스2대, 픽업1대)를 이용, 고속도로를 따라 교도소에 사격을 가하면서 접근중, 박격포에 의해 전술이 격퇴되자 계엄군은 즉각 용사 1명(사, 장, 1명)격포 (작광6대, 총기7정, 실탄 138발) 격포
- 경로 결과 : 광장방역 및 자위를 위한 대응사격으로 판단 - 5. 20. 23:20 발포금지 및 실탄통제 거시 유효(2군사) - 5. 21. 19:30 계엄사령관 자위권 발동 명령 - 5. 22. 00:00 계엄사령관 자위권 발동 거시(문명11호)
- 당시상황의 위험성, 광장방역 및 자위를 위한 대응으로 판단

○ 연 판단으로 5. 22. 00:40 시가 계엄군의 최초사격 시기로 판단

문서 2. 1988년 5월에 작성된 문서 1의 후속 문서. 군은 5·18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2일 0시 40분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정했다.

최초 발포 시점

질 의
○계엄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정령이 5.21, 19:30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발포한 것은 위법 아닌가?

답 변
○공식자료에 의하면 계엄군의 최초사격은 5.21, 13:30 시위대가 장갑차로 계엄군 저지선으로 돌진하고, 전일빌딩 지하도열 신속건물 옥상에서 무장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을때 공포탄 발사로 계엄군이 위법 공포사격으로 대응 무장시위대 퇴각(계엄군 8명 사상)한 것으로 파악함.

당시상황의 계엄군 사격은 적법한 계엄작전 임무를 수행중인 계엄군이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 행위에 대응한 최소의 자위권 행사로서 불법 무장 시위대의 공만한 사격행위 행위는 위법임

문서 3. 511연구위원회는 국회 광주청문회 논의가 본격화되자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1일 13시 30분 도청 앞 사격으로 바꿨다.

作战指道事項 (80.5.20.1500-5.21.0600) (80.5.21.0600)

20사단 이동 (陸作命 21-80 및 23-80호)

部隊	出發	到達	備考	備註	古鎗地
61聯隊	00:30	02:40	02:40	02:40	02:40
62聯隊	00:30	02:40	02:40	02:40	02:40
63聯隊	00:30	02:40	02:40	02:40	02:40
計	00:30	02:40	02:40	02:40	02:40

到着과 同時 2軍의 作战指道事項 移動

문서 4. 20사단의 광주 출동을 명령한 육군본부의 작전 조치 사항. 20사단의 최초 도착지가 송정리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발령번호 (출처)	내용	시간	비고
291	20사단 병력 광주역 도착 송정리역으로 변경	00:36 및 (-) 01:03 (2억단 2억)	20사단
341	송정리역에서 광주역으로 변경	01:58	20사단

문서 5. 전교사 작전일지는 20사단의 최초 도착지가 송정리역이 아니라 광주역이라고 명기하고 있다.